교수 44% "논술 채점 불공정"

대입 논술고사 채점을 담당한 교수 중 상당수가 채점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희대학교 사회조사랩 황승연 교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인 129명이 '논술 채점시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자는 27%(78명)에 불과했고 '중립' 29%(83명), 무응답자가 1명이었다.

설문에 응한 교수의 75%(219명)가 논술고사 채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은 '현행 논술고사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에 적합한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48%가 '그렇지 않다', 3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논술시험이 우수학생 선발에 적합한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찬성 40%, 반대 39%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공계 교수들은 51%가 '논술채점시 공정성과 일관성이 없다', 49.7%가 '논술시험은 우수학생 선발에 적합치 않다'고 답해 인문·사회계열 교수보다 논술시험에 더 부정적이었다.

바람직한 대학입시 방법에 대해서는 66%(191명)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으며 '논술+수능+내신' 13%, '수능+내신' 12%, '수능만' 6%, '내신만' 1% 순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외고, 계산식 수학·과학문제 안낸다

서울 6곳 2008년부터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부터 구술·면접시험에서 계산식 수학·과학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서울지역의 대원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개 외고들은 2007학년도에 특별전형을 통해 성적우수자와 외국어 우수자, 지역우수자 등 836명을, 일반전형을 통해 내신성적과 구술·면접시험으로 1천336명을 선발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구술·면접시험 문항은 10~12개로 수학·과학의 경우 계산식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계산식 문제 출제는 사실상 '금지'된다. 추론 능력이나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위주로 바뀐다.

2006학년도의 경우 서울지역 6개 외고 입시전형의 내신 실질 반영률이 평균 9%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특별전형 성적우수자 전형에서는 구술·면접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내신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영 "이찬 폭행으로 유산"

코뼈 접합수술도 받아

코뼈 접합 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이민영씨.

동료 배우 이찬과의 신혼여행 직후 파경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이 이찬으로부터의 폭행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민영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백상의 김재철 변호사는 1일 "이민영씨는 폭행으로 인한 코뼈 접합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애초 이민영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찬의 폭행과 유산(임신 15주), 결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2일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서울 길동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실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른살 동갑내기인 이찬과 이민영은 지난해 12월1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파경에 이르렀다.

김 변호사는 이들의 파경에 대해 '결혼취소'라는 용어를 썼으며 이에 대해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혼 부당파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해맞이 10만 인파

해남 땅끝·향일암·무등산 등 북적
목포선 2,500여명 선상 이색 일출

정해년(丁亥年) 첫날인 1일 오전 해남 땅끝마을과 여수 향일암, 광주 무등산 등 광주·전남 곳곳에는 10만명이 넘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소망을 빌었다.

올해 광주·전남의 첫 해는 오전 7시19분 순천에서 떠올랐다. 하지만 구름이 잔뜩 끼고 2~8㎜의 겨울비가 내린 영하의 추운 날씨(광주 영하 1.2도, 구례 영하 4.6도) 탓에 해맞이 객들은 일출의 장관 대신 가족·연인과 함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다.

전국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땅끝마을에는 일출시간인 이날 오전 7시41분께 1만여명의 인파가 모여 새해 소망을 기원했다.

목포에서는 2천500여 명이 '씨월드고속훼리호'(1만6천t급)에 승선, 목포항에서 삼호현대조선소 앞까지 유람을 하며 서해에서 이색적인 일출을 경험했다.

여수 향일암에서는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모여 '새 빛·새 희망·천년의 해 오름'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었다.

입석대·중머리재·장불재 등 무등산은 이른 새벽부터 1만5천여 명의 해맞이 객들로 북적였다.

이외 신안 우이도 상산봉과 홍도 앞 해상, 흑산도 상라봉 정상 등에서도 새해 태양이 처음 떠오르는 장관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관광객과 사진작가 등 수천 명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구랍 31일 밤 10시50분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2007 새해맞이 시민축제'가 열려, 병술년을 보내는 시민들의 서운한 마음을 달랬다. 이날 축제에는 '크라잉 넛' 'JK 김동욱' 등 인기 가수들이 공연을 펼쳤고, 자정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 8명이 '민주의 종'을 33회 타종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風燈에 소망 담아 구랍 31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 일원에서 열린 '2007 새해맞이 시민축제'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담은 풍등(風燈)을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새해 1호들

0시0분15초 첫 아이 탄생
첫 출발 열차 'KTX 502호'

2007년 첫날을 맞아 광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1호의 주인공'들이 탄생했다.

1일 새벽 0시0분15초 체중 3.98㎏의 건강한 남자아이가 광주시 서구 금호동 미즈피아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금호동에 사는 지병곤·김순자씨의 셋째 아들이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지씨는 "황금돼지의 해에 1등으로 태어난 만큼 복덩어리가 아닐까 싶다"며 "돈도, 명예도 좋지만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에 첫 착륙한 외국 항공기는 중국 동방항공사의 'MU 5057'편이었다. 'MU 5057'편은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오전 11시35분께 광주공항에 도착했다.

광주를 출발한 첫 열차는 새벽 5시15분 광주역에서 승객 85명을 태우고 용산역으로 출발한 KTX '502호'(기장 강운석)로 기록됐다. 광주에 도착한 첫 열차는 용산역을 출발해 오전 8시15분 광주역에 도착한 KTX '501호'(기장 정경호)였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승객을 운송한 지하철은 새벽 5시30분 소태역에서 상무역으로 향한 '1001호'차(기관사 김두열)와 상무역에서 소태역으로 운행한 '1002호'차(기관사 신오현)로 각각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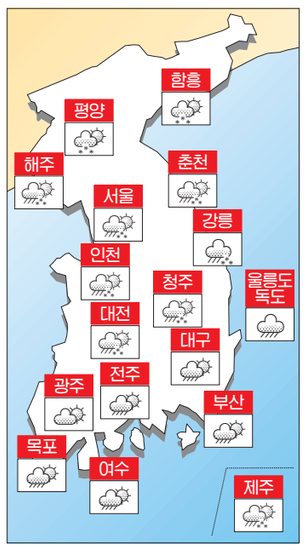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힘빠진 동장군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흐린 뒤 낮에 개겠다.

1월 2일 (음 11월 14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린뒤 갬	1~10℃
목 포	비온뒤 갬	2~8℃
여 수	비온뒤 갬	4~10℃
완 도	비온뒤 갬	2~10℃
구 례	흐린뒤 갬	1~10℃
해 남	비온뒤 갬	0~10℃
장 흥	비온뒤 갬	-1~10℃
고 흥	비온뒤 갬	2~10℃
순 천	흐린뒤 갬	-1~10℃
영 광	비온뒤 갬	0~8℃
진 도	비온뒤 갬	2~10℃
전 주	흐린뒤 갬	1~9℃
남 원	흐린뒤 갬	-2~9℃
정 읍	흐린뒤 갬	0~8℃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0:20 13:27 썰물 05:58 18:56
여 수 밀물 08:28 20:25 썰물 01:42 14:37

▲해뜸 07:41 ▲해짐 17:31 ▲달뜸 15:56 ▲달짐 06: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 씨						
최저/최고	1/10	1/8	3/6	-2/2	-4/2	-5/2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연내 구축

올해 안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지원, 보호시설 제공,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 원스톱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상담과 의료지원,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 일련의 보호·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 신고 콜센터를 설립토록 했으며 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했으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의 적절성 심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형사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공소장을 읽을 때도 피해자 이름을 읽지 않는 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수돗물 브랜드명 '빛여울 水'

광주시의 수돗물 브랜드명으로 '빛여울 水'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1일 "수돗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연말 수돗물 브랜드명을 공모해 2천247건을 접수·심의한 결과 '빛여울 水'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빛여울 水'가 빛의 도시 광주를 떠오르게 하면서도 빛이 맑고 깨끗한 물에 투영된 모습을 나타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빛여울 水'를 올 하반기 생산 예정인 병 수돗물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각종 상수도 홍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